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14~09/20

1. 미국 트럭 운송 시장의 운임 급등과 물동량 감소

2. LA항의 역대 최대 여름 성수기 물동량 기록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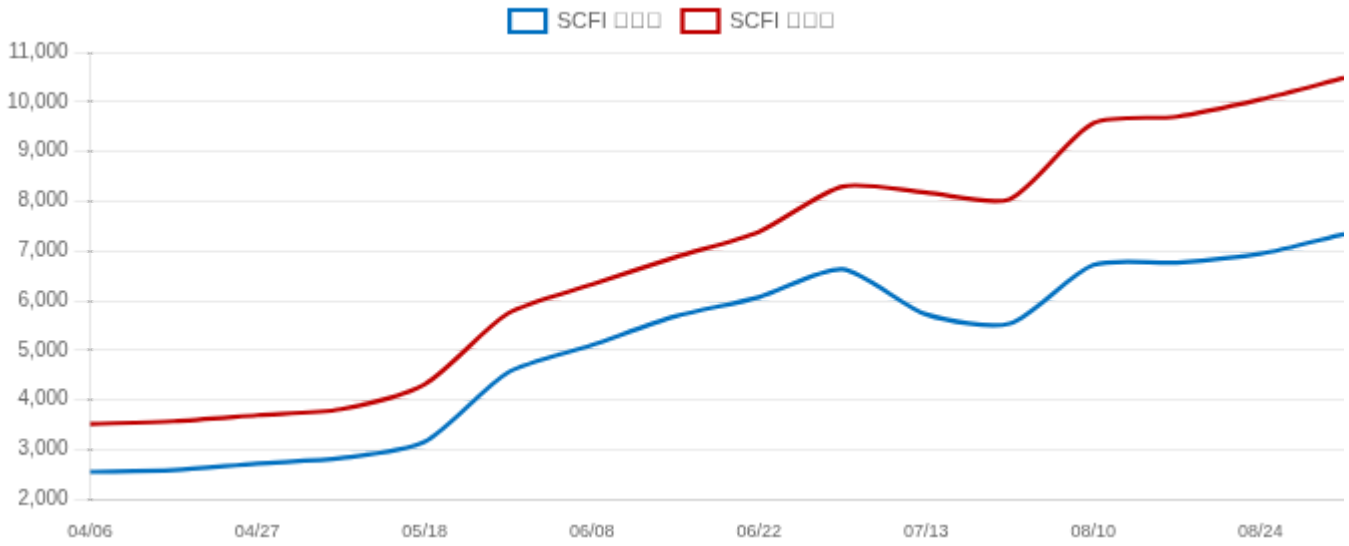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에서는 미국 수입 수요의 강세가 항만 물동량 기록으로 확인된 가운데, 내륙 운송 부문에서는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 요인이 운임 급등을 이끄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남. 로스앤젤레스항은 역대 최대 여름 성수기 물동량을 기록하며 미국 소비 시장의 견조함과 연말 쇼핑 시즌 대비 조기 재고 확보 움직임을 반영함.

반면 미국 트럭 운송 시장은 물동량 감소에도 운송 능력 축소와 유류비 급등으로 화주 운송비가 크게 오르며 공급망 내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됨. 항만의 활발한 처리량이 내륙 운송의 병목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수입 화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전가와 물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됨. 향후 연말 성수기까지 항만 혼잡과 육상 운송비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미국 공급망 전반의 비용 효율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7,339 $/FEU	09/07	—	+9.3%
SCFI 미동안	10,479 $/FEU	09/07	—	+9.5%
KCCI 미서안	7,485	09/14	+0.8%	+8.4%
KCCI 미동안	11,019	09/14	+0.3%	+10.4%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9/07

미국 트럭 운송 시장의 운임 급등과 물동량 감소

> **미국 트럭 운송 시장에서 물동량은 감소했음에도 운송 능력 축소와 유류비 급등으로 화주 운송비가 전년 동기 대비 28.1% 급등함. 이는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 요인이 운임을 끌어올린 구조적 변화를 시사함.**

2025년 2분기 미국 화주들의 트럭 운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1% 급증한 반면, 전국 화물 물동량은 2.8% 감소함.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운송비는 6.4% 증가했고 물동량은 1.1%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이러한 운송비와 물동량의 역방향 움직임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운송비 급등의 주된 원인은 트럭 운송 능력 축소와 유류비 상승임. 시장 내 가용 트럭 수가 줄어들면서 화주 간 운송 능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운임 상승으로 이어짐. DAT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평균 연료비는 마일당 75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상승했으며, 이는 계약·현물 운임 모두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운임 유형별로는 현물 운임이 직전 분기 대비 18.9% 급등하며 계약 운임 상승 폭을 크게 웃돎. 그러나 계약 운임과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화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현물 시장을 활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계약 운송 비중을 다시 늘리는 양상이 나타남. 이는 운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위험 회피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함.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의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이는 로스앤젤레스 산불 복구 관련 건설 자재 수요와 항만 수입 물량 증가에 기인함. 반면 남서부 지역은 물동량이 감소했음에도 화주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9% 급증해 운송 능력 부족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멕시코 국경 운송 규제 강화와 운전자 자격 단속이 남서부의 운송 능력 부족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함.

- 2분기 미국 화주 트럭 운송비는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 직전 분기 대비 6.4% 증가함
- 전국 화물 물동량은 2.8% 감소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평균 연료비는 마일당 75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78.6% 급등함
- 현물 운임은 직전 분기 대비 18.9% 상승하며 계약 운임과의 격차를 좁힘
- 서부 지역 물동량은 5.5% 증가했으나 남서부 화주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9% 급증함

전망

물동량 회복은 당분간 더딜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송 능력 부족은 구조적 요인(운전자 부족, 규제 강화)으로 인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화주의 운임 부담은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유류비가 안정될 경우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운송 능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 한 운임 하락은 제한적임.

시사점

화주 — 운송비 급등에 대응해 장기 계약 체결과 물류 네트워크 재설계 등 비용 통제 전략 수립이 필요함

포워더 — 운송 능력 확보가 관건이므로 다양한 운송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및 대체 운송수단 모색이 요구됨

트럭 운송사 —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확보와 규제 대응 등 공급 능력 유지가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

참고자료: DC Velocity, 미 트럭 운임 급등, 물동량은 감소…운송비 28%↑ · DC Velocity, 미국 트럭 운송비 28%↑…물동량 줄었는데 화주 부담 가중 (검색일: 2026-09-20)

LA항의 역대 최대 여름 성수기 물동량 기록

> **로스앤젤레스항이 8월 95만5907TEU를 처리하며 6~8월 누적 290만TEU를 돌파, 항만 역사상 가장 바빴던 여름 성수기를 기록함. 미국 수입 수요의 강세와 연말 물량 조기 유입, 서부 항로의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LA항의 8월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95만5907TEU였으나 5년 평균 대비 6% 높은 수준으로, 6~8월 누적 처리량은 290만TEU를 넘어 항만 사상 최대 여름 실적을 달성함. 이웃한 롱비치항도 8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샌페드로베이 양대 항만의 월간 합산 처리량은 188만TEU에 육박함. 수입 적재 컨테이너는 50만302TEU로 5년 평균보다 7% 많았고, 수출 적재 컨테이너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11만5561TEU로 수입 중심의 성장세가 뚜렷함.

이러한 기록적 물동량의 배경에는 미국 소비 수요의 지속적 회복과 연말 쇼핑 시즌을 겨냥한 화주들의 조기 선적이 자리함. 당초 관세 부과와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수기 물량이 상반기로 당겨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가 이어짐. 진 세로카 LA항 전무이사는 환태평양 해상 운임이 동부 항로보다 서부 항로에 유리하고, LA항을 통한 철도 연계 속도가 내륙 시장 수입 화주의 경제성을 높인다고 설명함.

이로 인해 LA항은 미국 수입 화물의 주요 관문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샌페드로베이 항만 운영사와 철도 운송사, 창고 및 유통 업체들의 물동량 처리 부담이 증가함. 반면 수출 적재 컨테이너의 감소는 미국발 수출 화물의 약세를 반영하여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항만 혼잡과 장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됨.

- LA항 8월 처리량 95만5907TEU, 전년 동기와 유사하나 5년 평균 대비 6% 증가.
- 6~8월 누적 물동량 290만TEU 돌파, 항만 역사상 최대 여름 실적.
- 수입 적재 컨테이너 50만302TEU로 5년 평균 대비 7% 증가, 수출 적재는 11만5561TEU로 전년 대비 9% 감소.
- LA·롱비치 합산 8월 처리량 188만TEU 육박.
- 글로벌포트트래커, 9월 미국 주요 항만 수입 물량 전년 대비 9.6% 증가한 231만TEU 전망.
- 서부 항로 운임 경쟁력과 철도 연계 속도가 LA항 선택 요인으로 작용.

전망

하반기 미국 수입 물량은 10월과 11월 각각 211만TEU, 200만TEU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서부 항만의 경쟁력이 지속되는 한 LA항의 물동량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큼. 다만 항만 혼잡과 노사 문제, 장비 부족 등의 변수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연말 성수기 대비 조기 선적 전략과 서부 항로 활용 시 비용 및 리드타임 절감 효과가 기대됨.

포워더 — 서부 항로 중심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철도 연계 서비스와 창고 용량 확보가 필요함.

항만·선사 — LA항 터미널 운영사와 선사는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와 혼잡 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운영 효율화 투자가 요구됨.

참고자료: gCaptain, LA항 8월 96만TEU 처리…역대 최대 여름 성수기 마감 (검색일: 2026-09-20)